

# ‘로또 공모’에 63조 군침… 고평가 논란 뚫고 빅히트?

오늘부터 공모주 일반청약 접수  
CMA 잔고 63조 돌파… 역대 최고  
따상하면 단번에 코스피 30위권  
고평가 적정가 두고 증권사 이전

방탄소년단(BTS) 소속사 빅히트엔터테인먼트가 상장 일정에 돌입한다. 빅히트는 지난달 24일부터 이를 동안 진행한 기관투자자 대상 수요예측을 통해 공모가 희망 범위 최상단인 13만 5000원을 확정했다.

이번 공모를 통해 총 713만주의 신주를 발행하는데 이 가운데 일반투자자 배정물량은 20%인 142만6000주뿐이다. 경쟁률에 따라 받는 물량은 극히 적을 가능성이 큰 만큼 투자자들 사이에서 ‘로또 공모주’라는 불멘소리가 나온다.

◆63조 타깃된 빅히트, 예견된 흥행? 현재까지 분위기로는 빅히트의 성공적인 증시데뷔가 확실하다.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진행한 결과 1117.25대 1을 기록했다. 지난 7월 상장한 SK바이오팜(835대 1)을 가뿐히 제치고 기업공개(IPO) 시장 역사상 코스피 최고 경쟁률을 나타냈다.

카카오게임즈(1479대 1)를 넘진 못했지만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카카오게임즈와 달리 코스피 상장이란 점을 생각하면 사실상 그 이상의 성과라고 볼 수 있다.

이제 시장의 관심은 얼마만큼의 청약 증거금을 모으느냐에 향한다. 기존 시장 참여자뿐 아니라 BTS의 초대형 팬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가 올해 말 확장 이전을 앞둔 서울 용산구 신사옥(용산 트레이드센터)모습. /연합뉴스

덤인 ‘아미’의 가세까지 예상되는 만큼 기관 수요예측 흥행 이상의 청약 성적을 기록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청약증거금 규모만 60조원을 넘길 수 있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카카오게임즈는 지난달 초 진행된 일반 청약에서 역대 최대 규모인 58조5543억원을 모은 바 있다.

역대 최대 규모인 증시 대기자금이 이러한 추세를 뒷받침한다.

4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기준 종합자산관리계좌(CMA) 잔고는 63조100억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투자자 예약금도 54조8187억원에 달한다. 카카오게임즈가 청약을 시작하던 지난달 1일 54조5372억원과 비교하면 약 8조원 늘었다. 자금상당 부분이 빅히트로 흘러갈 가능성이 크다.

만일 함께 IPO 시장 기대주로 거론됐던 SK바이오팜과 카카오게임즈와 같은 따상(시초가가 공모가 두 배로 정해진 뒤 상한가)의 선례가 빅히트에도 반복되면 주가는 35만1000원까지 치솟게 된다. 이 경우 시가총액 12조5000억원으로 단번에 코스피 30위권에 올라선다. 공모주를 받은 투자자는 주당 수익 21만 6000원(수익률 160%)을 챙길 수 있다.

◆애널리스트도 ‘절레절레’…신(神)도 모르는 적정가

빅히트가 마주한 가장 큰 과제는 고평가 논란이다. 게다가 공모가를 산정할 때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주가수익비율(PER)이 아닌 ‘기업가치/상각전이익’(EV/EBITDA) 방식을 활용해 작성하고 몸값을 높인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커진 상태다.

## 빅히트엔터테인먼트 공모주 청약 개요

공모가	13만 5,000원
총 공모금액	9천625억5천만원
경쟁률	1,117: 1
시가총액	4조 8천억원
상장일	10월 15일
일반 청약	10월 5~6일



연합뉴스 자료/ 빅히트엔터테인먼트

증권사들도 빅히트의 적정가치를 두고 의견이 엇갈린다. 시장의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있지만 목표주가 혹은 적정 주가를 낸 증권사 기업분석보고서(리포트)는 단 5장에 불과하다. 약 15곳의 증권사가 리포트를 냈음에도 대부분이 목표주가는 제시하지 않았다.

밸류에이션을 측정하기 어렵다는 방증이다. SK바이오팜과 카카오게임즈의 상장 초기 주가흐름이 목표주가를 훨씬 웃돌았던 기억도 빅히트의 몸값 측정을 억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목표주가를 내지 않은 한 증권사 미디어·엔터 담당 연구원은 “애널리스트도 서로 눈치를 보는 분위기이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목표주가를 측정하는 지표는 PER과 주당순이익(EPS)이다.

여기에 빅히트라는 기업 프리미엄에 얼마만큼의 밸류에이션을 부여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라며 “코로나19로 인한 컨센서스 불확실성도 있는 만큼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을 아꼈다.

목표주가를 낸 증권사들도 편차가 크다. 하나금융투자가 38만원으로 가장 높은 목표주가를 냈고 유안타증권과 IBK투자증권이 각각 29만6000원, 24만원을 제시했다. 신한금융투자와 메리츠증권은 적정주가로 각각 29만원, 16만원을 측정했다.

가장 낮은 가격을 매긴 이효진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업계 1위 프리미엄의 적용이 타당하다”면서도 “지식재산권(IP)이 아티스트 본인에게 소유되는 업계 한계를 변화시키지 못했기에 프리미엄 확장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가장 높은 점수를 준 이기훈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완전한 콘서트 가능한 2022년 EPS에 JYP엔터테인먼트 대비 50% 할증한 목표 PER 50배를 적용했다”며 “빅히트가 글로벌 음악 산업의 혁신 그 자체임을 고려한 밸류에이션이다”라고 설명했다.

빅히트는 이번 일반투자자 대상 청약을 마친 후 오는 15일 코스피 시장에 입성한다. NH투자증권과 한국투자증권, JP모건이 공동대표주관사를, 미래에셋대우가 공동주관사를 맡았다.

청약을 원하는 투자자는 5~6일 동안 NH투자증권과 한국투자증권, 제이피모간증권회사 서울지점, 미래에셋대우 계좌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송태화 기자 alvin@metroseoul.co.kr

# 코로나에 막힌 취업… “대졸 절반은 백수”

한경연 4158명 대상 설문  
예상 취업률 44.5% ‘비관적 전망’  
75% “신규 채용 작년 보다 암울”  
57% “상반기보다 하반기 더 악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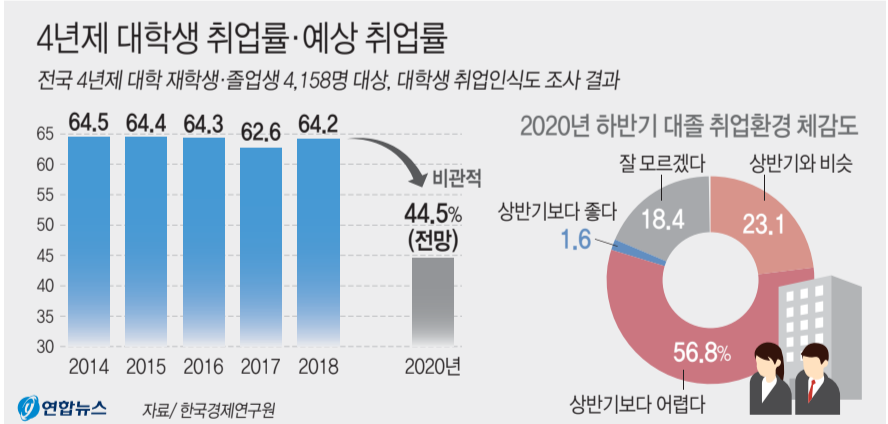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올해 졸업을 앞둔 예비 취업준비생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전국 4년제 대학 재학생과 졸업생 4158명을 대상으로 ‘대학생 취업인식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올해 졸업생의 55.5%가 취업을 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고 4일 밝혔다.

한경연은 응답자들에게 소속 학부(학과) 졸업생과 졸업예정자 중 올해 취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학생의 비중을 설문 조사한 결과 예상 취업률이 평균 44.5%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한경연은 2014년 이후 5년간 졸업생의 실제 취업률이 62.6~64.5% 수준이었음을 고려하면 비관적인 전망이라고 주장했다.

올해 대졸 신규 채용 환경이 지난해보다 어려워졌다고 답한 대학생은 75.5%로 작년 조사보다 29.4%포인트 늘었다.

반면 채용 환경이 ‘작년과 비슷하다’는 응답은 9.1%로 작년(30.6%)보다 21.5%포인트 줄었고, ‘작년보다 좋다’



는 응답은 1.3%로 1.2%포인트 감소했다. 또 절반 이상인 56.8%는 올해 하반기 취업 환경이 상반기보다도 더 악화했다고 답했다. 상반기보다 나아졌다는 응답은 1.6%에 불과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취업 준비 과정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채용 기회 감소로 인한 입사 경쟁 심화’라는 응답이 38.1%로 가장 많았다. ‘체험형 인턴 등 실무경험 기회 확보 어려움(25.4%)’, ‘단기 일자리 감소 등 취업준비의 경제적 부담 증가(18.2%)’라는 응답도 있었다.

대학생들의 취업 선호도는 공기업(21.5%)이 가장 높았고 기업(16.8%), 정부(공무원)(16.8%), 중견기업(15.6%), 중소기업(11.8%), 외국계기업(9.0%), 금융기관(3.9%) 순이었다. 그러나 실제로 취업할 것으로 예상

되는 기업은 중소기업(25.0%)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중견기업(19.1%), 공기업(16.0%), 정부(공무원)(15.9%), 대기업(8.6%), 외국계기업(6.0%) 순이었다.

비대면 채용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라는 응답이 50.6%로 부정적(21.4%)이라는 응답보다 많았다. 긍정적이라고 답한 이유로는 ‘코로나19 감염 및 확산 방지(42.9%)’가 가장 많이 꼽혔다.

부정적이라고 답한 이유로는 41.4%가 대면 방식보다 자신을 제대로 어필하기 어렵다는 점을 꼽았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최근 고용 창출의 주체인 기업의 활력이 급속히 둔화됐다”며 “규제 완화, 고용유연성 확보 등 기업의 고용여력 확충에 국가적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

# 글로벌 수요 회복세에 철강업계도 ‘숨통’

>> 1면 “한때 생존경쟁” 기업들서 계속

현대차는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 1조 1644억원으로 1조원대를 회복했으나 올해는 코로나19 여파로 글로벌 시장에서 부진하며 1분기에 영업이익 8638억원으로 쪼그라든 데 이어 2분기에는 5903억원으로 반 토막 났다. 그나마 내수 시장에서는 신형 모델 출시로 판매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지난해 11월 출시된 신형 그랜저는 최단기간인 8개월 만에 연간 누적 판매 10만대를 넘어서며 일찌감치 올해의 판매왕 자리를 선점했다. 5년 만에 재탄생한 ‘디 올 뉴 투싼’은 사전 계약 첫날 1만대를 돌파하며 현대차 SUV 기록을 갈아 치웠다.

2분기 바닥을 찍은 철강업계도 숨통이 트이는 분위기다. 그동안 국내 철강업계는 코로나19로 인한 수요 급감, 원자재 가격 인상, 일본산 저가 공세 등으로 삼중고를 겪었으나 최근 전 세계적으로 철강수요가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다.

업계에서는 포스코의 연결기준 3분기 영업이익은 4929억원으로 예측했다. 지난해 3분기 실적(1조398억원)에는 절반에도 못 미치지만, 올해 2분기(1677억원)보다는 3배에 육박하는 수치다.

포스코는 단독 기준으로 2분기에 사상 첫 분기 영업적자를 냈다. 하지만 3분기에는 단독 기준으로도 흑자를 낼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것으로 예측됐다.

현대제철의 3분기 영업이익은 189억원으로 추산됐다. 전년 동기 대비 44.6% 감소한 수치지만, 2분기(140억원)보다는 다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코로나19에도 622억원의 영업이익을 냈던 동국제강은 3분기에도 612억원의 영업이익을 내며 견조한 실적을 이어갈 것으로 예측됐다.

철강업계의 실적 반등은 코로나19 충격에서 조금씩 회복하면서 국외 철강수요가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미국과 유럽 등지에서는 자동차, 가전 등 주요 수요 산업 가동이 다시 원활해지고 있다. 특히 중국이 철강 제품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는 데 해의 시장에서도 덩달아 가격이 오르는 상황이다. 업체들도 이에 맞춰 제품 가격을 올리고 있다.

한편 국내 기업들의 이달 중순을 기점으로 3분기 실적 발표를 이어갈 전망이다. /양성운 기자